



미국 제조업 회귀의 현황 및 평가

- ◆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미국에서 일부 제조업체가 회귀하는 사례가 나타나는 가운데 제조업 생산이 여타 선진국에 비해 빠른 속도로 회복되는 모습을 보임에 따라 미 제조업이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부상할 것이라는 기대가 확산
- ◆ 수출점유율, 수출입차 등의 관련지표를 살펴보면 자동차, 석유, 화학, 1차금속, 식품, 기계, 기타운송장비 등의 업종에서 회귀 징후가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임
- ◆ 이러한 일부 제조업체의 회귀는 중국 등과의 인건비 격차 축소, 운송비 상승, 국내 에너지가격 하락 등으로 해외 생산에 따른 비용절감의 이점이 줄어드는 가운데 소비자의 다양한 취향 등에 따른 제품주기 단축 등으로 국내시장에서 제품개발과 생산을 병행할 필요성이 커진 데 주로 기인
- ◆ 미국에서 제조업 회귀 현상이 일부 업종에서 나타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보다 확산될지의 여부를 현 시점에서 판단하기는 매우 어려우나, 중국의 WTO 가입(2001년) 이후 빠르게 진행되었던 미국 제조업체의 생산시설 해외이전 움직임은 점차 둔화될 것으로 예상
 - 특히 제조업 회귀의 주요 요인인 미·신흥국간 노동비용 축소 등이 지속될 경우 노동비용 부담이 크지 않고 셰일가스 생산혁신의 혜택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업종에서 회귀 현상이 보다 뚜렷해질 가능성
- ◆ 그러나 섬유, 의복 등 노동비용 부담이 큰 업종과 생산비용 격차에 민감한 저부가가치 업종에서 회귀가 이루어지기는 어려울 전망
- 미국과 중국 등과의 임금 격차는 여전히 큰 수준이어서 노동비용 부담이 큰 기업은 미국으로 생산시설을 이전할 유인이 크지 않은 상황
- ◆ 한편 미국 기업들은 향후 성장 가능성이 큰 중국 등 아시아국가의 내수시장에 대한 진출을 확대해 나갈 것으로 보이는 만큼 동 부문을 중심으로 한 해외직접투자는 꾸준히 늘어날 전망

I

검토 배경

-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미국에서 일부 제조업체가 회귀(reshoring)*하는 사례가 나타나는 가운데 제조업 생산도 여타 선진국에 비해 더 빠른 속도로 회복되는 모습
- * 생산비용 절감 등을 위해 해외로 이전되었던 제조업 생산시설의 일부 또는 전체가 본국으로 돌아오는 현상을 지칭. 이와 함께 과거(2000년 ~ 금융위기 이전)와는 달리 특정 생산활동이 해외가 아닌 본국에서 이루어지는 경우도 포함
- 위기 이후 Ford 등 일부 미 제조업체들이 중국 등 저임금 국가에서 철수하거나 생산시설을 축소하는 가운데 국내 생산시설을 확대*

* Economist(2013) 등은 이러한 제조업 회귀가 주로 미국에 국한하여 발생하는 현상으로 규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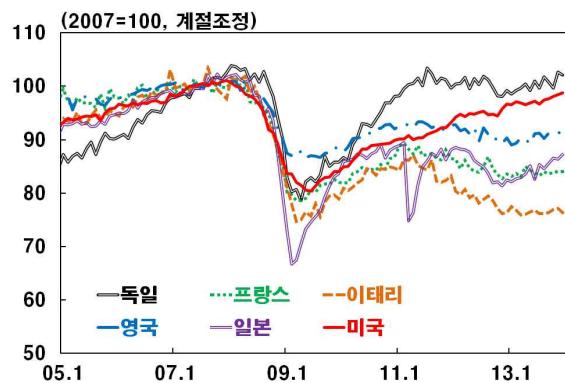
- 이와 함께 미 제조업 생산이 위기 이후 주요 선진국에 비해 빠른 회복세를 시현
 - 독일의 제조업 생산이 미국보다 더 빠르게 회복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011년 중반 이후 정체 상태에 진입한 반면, 미국의 경우 꾸준한 성장세를 지속하는 모습

미국의 제조업 회귀 사례

기업	원생산처	내용
Whirpool	중 국	가전공장 이전
Lenovo	중 국	컴퓨터 제조공장 이전
GE	중 국	세탁기 공장 등 이전
Ford	멕시코	트럭생산공장 이전 엔진공장 증설
Caterpillar	일 본	굴삭기 공장 이전

자료 : 언론보도 및 개별 기업의 홈페이지

주요 선진국의 제조업 생산



자료: FRB 등

- 이에 따라 일부에서는 향후 제조업의 회귀 현상이 가시화될 경우 제조업이 재도약할 계기가 마련됨에 따라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부상할 것이라는 기대가 확산

⇒ 최근 미국에서 나타나고 있는 제조업의 회귀 현황 및 특징을 살펴보고 그 주요 배경 및 향후 여건을 짚검

II

제조업 회귀의 현황 및 특징

1. 회귀 사례

- 금융위기 이후 미국에서 제조업이 회귀하는 사례가 계속 나타남

- 중국 등 저임금 국가에서 회귀하는 사례가 대부분이며 일본 등 선진국에서 회귀 사례도 일부 발생*

* Reshoring Initiative(2013)가 2013.3월까지 수집한 회귀사례에 따르면 중국으로부터의 회귀가 60.7%이며 다음으로 멕시코 12.1%, 일본 6.9%, 인도 4.6%의 순임

- Apple은 중국(Foxconn)에서 생산하던 스마트폰 부품을 국내 신설 공장에서 생산하기로 결정('13.11월)하였으며 Ford는 멕시코 트럭공장의 국내 이전을 발표('11.12월)
- Caterpillar의 경우 2011년 일본의 대지진으로 인해 부각된 지리적 리스크 극복 등을 위해 일본에서 국내로 회귀하기로 결정('12년중)
- Dow Chemical은 국내 에틸렌 생산 증가, 주 정부의 세금감면 등을 고려하여 국내에 화학제품 생산공장을 신설('13.8월)

- 국내로 회귀한 제조업체는 K'Nex(장난감)와 같은 소규모 기업에서 Ford, GE 등과 같은 대규모 기업까지 다양하게 분포

□ 설문조사에 따르면, 상당 수 제조업체가 국내로의 생산 이전을 고려하고 있으며 그 수도 점차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MIT forum의 설문조사('12년)에 따르면, 응답 업체*의 34%가 회귀를 고려하고 있으며, 15%는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응답

* 미국에 본사를 둔 156개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설문 조사

- Boston Consulting Group의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국내 생산이전을 고려하고 있다고 응답한 업체 비중이 크게 상승(37%'('12.2월) → 54%'('13.8월))

* 미국에 본사를 둔 매출액 10억달러 이상인 200개 기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

제조업체의 미국내 생산시설 신·증설 사례

기업	원생산처	내용	규모	회귀요인	발표일
K'Nex	중 국	장난감 공장 이전	—	급변하는 소비자선호에 신속 대응	'09년중
NCR	중 국	ATM 제조 공장 이전	—	소비자에 대한 접근도 제고, 정부 지원	'09. 8월
IKEA	신 설	가정용품 공장 신설	2.8억\$	운송비 절감, 정부 지원	'09.12월
Caterpillar	일 본	굴삭기 공장 이전 등	1.2억\$	노동자의 높은 생산성, 운송비 등 경감	'12년중
Ford	멕시코	트럭 제조공장 이전	1.3억\$	미국내 수요 증가,	'11.12월
	국내증설	엔진공장 개조	2억\$	노조와의 2단계 임금체계 ¹⁾ 합의	'13. 2월
GM	국내신설	조립공장 신설	6억\$	에 따른 노동비용 절감	'13. 1월

기업	원생산처	내용	규모	회귀요인	발표일
GE	중 국	세탁기, 냉장고, 히터공장 이전	10억\$	운송비 절감, 정부 지원 ³⁾ , 엔지니어의 생산 참여도 제고	'12. 2월
Google	국내신설	Nexus Q 제조공장 신설	-	미국산에 대한 소비자 선호도 상승	'12. 6월
Lenovo	중 국	컴퓨터 제조공장 이전	-	회사 및 제품 이미지 제고 시장 접근도 제고	'12.10월
Otis	멕시코	엘리베이터 공장 이전	0.4억\$	소비자 지원 및 신제품 개발 강화	'13년 중반 ¹⁾
Whirpool	멕시코, 중 국	세탁기 등 가전공장 이전	-	운송비 및 전기요금 절감	'14. 4월 ²⁾
Apple	중 국	스마트폰 부품 직접생산	-	foxconn 노동자 처우 관련 현지 여론 악화, 생산관리 강화	'13.11월
Dow Chemical	국내신설	화학제품 생산공장 신설	10억\$	에틸렌 생산 확대, Louisiana 주의 세금 감면(3백만\$) 보장	'13. 8월
Chevron Philips	국내신설	에탄, 폴리에틸렌 가공 설비 신설	-	세일가스 개발로 인한 원가 절감	'13.10월
Exxon Mobile	국내신설	합성유 생산설비 신설	-	텍사스 화학복합단지와의 통합, 차세대 합성유 생산	'14. 3월

주 : 1) 신규직 임금(16~20\$/hr)과 경력직 임금(28\$/hr) 세계 분리(2007년)

2) 신규공장 가동일 또는 증설완료일

3) 에너지 효율성을 제고한 공장 설립과 기타 투자에 대해 0.17억\$ 규모의 인센티브 제공

자료 : John A. Pearce II(2014), 언론, 각사 홈페이지

2. 업종별 회귀 현황 및 특징

- 해외로 생산시설을 이전하거나 미국 내로 회귀한 제조업체 관련 정보는 일부 기업의 발표자료, 언론기사 등을 통한 단편적인 사례 정도만 입수 가능하고 관련 통계도 전무하기 때문에 제조업의 회귀 현황에 대한 분석이 매우 어려운 실정
- 이러한 현실적인 제약점을 감안하여 해외로의 생산시설 이전(off-shoring)이 줄어들고 국내로의 회귀(reshoring)가 늘어날 경우 이를 반영할 가능성이 있는 다음의 지표를 점검함으로써 특정 업종에서 회귀 징후가 있는지의 여부를 간접적으로 진단

- **(수출점유율)** 미국의 수출기업이 생산시설을 중국 등 신흥국에서 국내로 이전하였다면 신흥국의 실적으로 편제되던 수출이 미국의 수출에 포함됨에 따라 세계시장점유율, 즉 수출점유율이 상승

* 국내 R&D 투자와 생산시설의 지리적 근접에 따른 시너지효과 등으로 수출경쟁력이 높아질 경우도 수출점유율이 높아지는 효과가 나타날 수 있음

- **(수출입차)** 해외에서 생산하여 미국 등 여러 국가로 수출하던 기업이 미국 내로 이전 할 경우 수입이 줄어들고 수출이 늘어나면서 수출입차(상품 기준)가 축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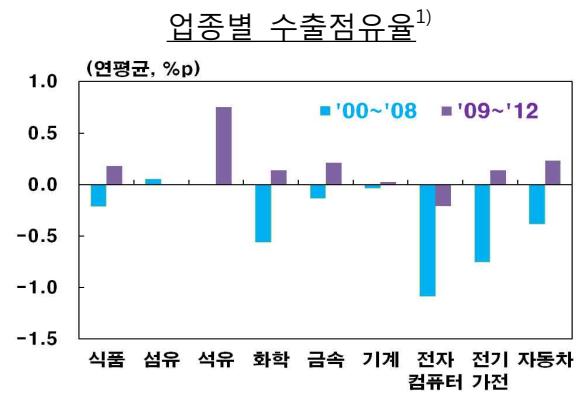
- **(자본순유입*)** 미국에서의 생산을 위해 과거라면 해외에서 진행될 투자가 국내에서 이루어지면서 해외직접투자(ouward FDI)가 감소

* inward FDI – outward FD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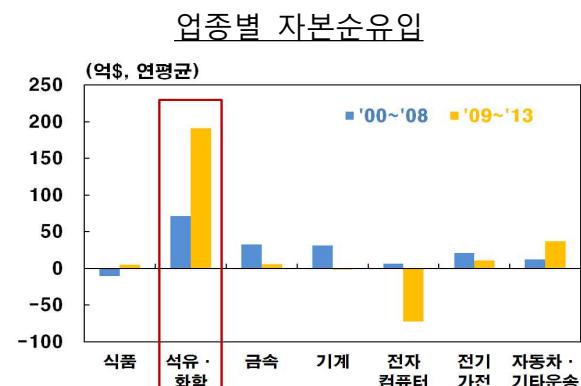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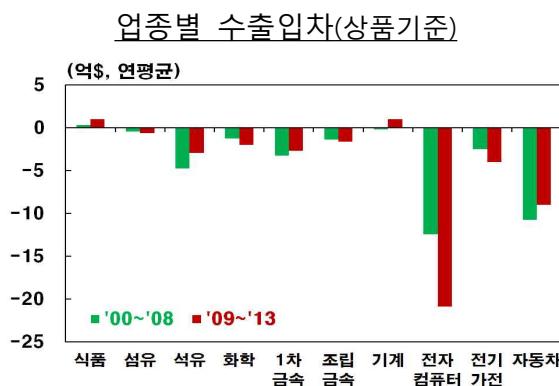
- 반면 미국의 기업환경 개선 등으로 다국적 기업 및 해외기업이 미국에서 생산시설을 건립하거나 확대할 경우 외국인직접투자(inward FDI)가 확대되면서 자본순유입이 확대
- (생산능력<capacity>, 생산) 미국 내로의 회귀로 투자, 고용 등이 늘어나면 해당 업종의 생산능력이 확대되는 가운데 생산도 증가

(회귀 징후를 보이는 업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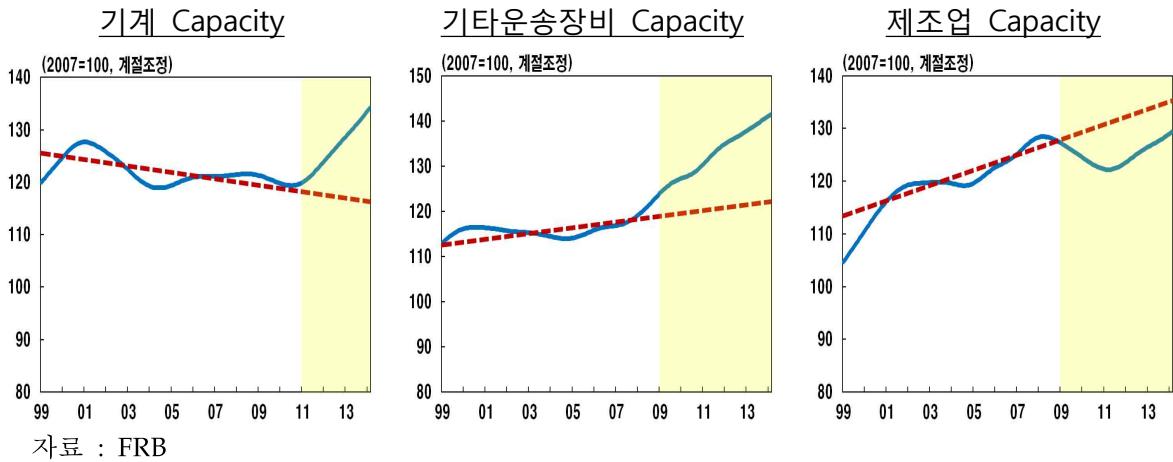
- 앞에서 제시한 기준을 토대로 점검해 본 결과, 자동차, 석유, 화학, 1차금속, 식품, 기계, 기타운송장비* 등의 업종에서 회귀 징후가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임
 - * 항공 74%, 철도 15%, 선박 및 기타 11%로 구성(2013년 생산 기준)
- (자동차) 생산이 위기 이전의 추세 수준을 넘어선 가운데 수출점유율도 상승으로 전환



- (석유제품 및 화학) 생산이 위기 이전 수준을 밀돌고는 있지만, 수출점유율이 점차 개선되는 가운데 자본순유입(inward FDI - outward FDI) 규모도 크게 확대
- (제1차금속 및 식품제조업) 생산이 꾸준히 늘어나면서 수출점유율 및 수출입차(상품기준)가 개선되는 모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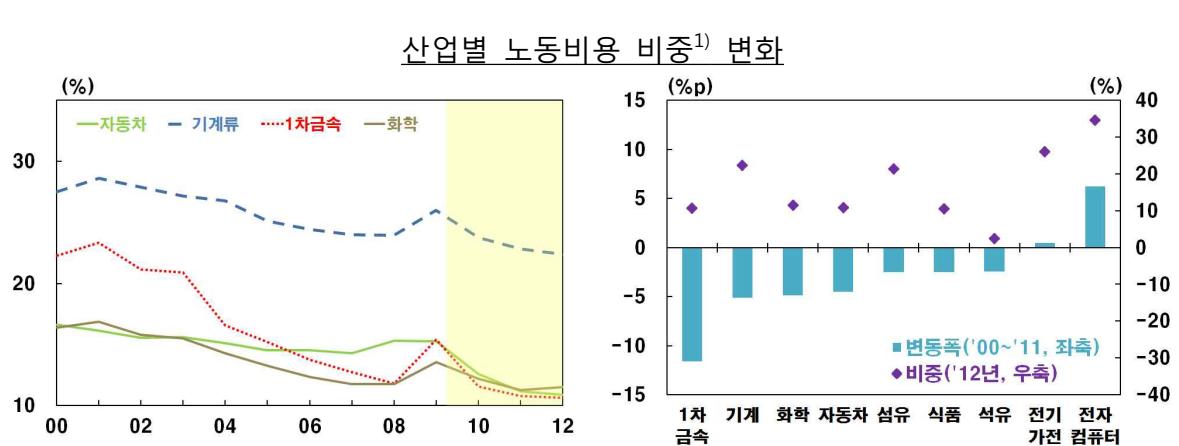
- (기계, 기타운송장비) 수출점유율이 높아지고 있으며 생산능력도 위기 이전의 추세 수준을 상회



(회귀 징후를 보이는 업종의 특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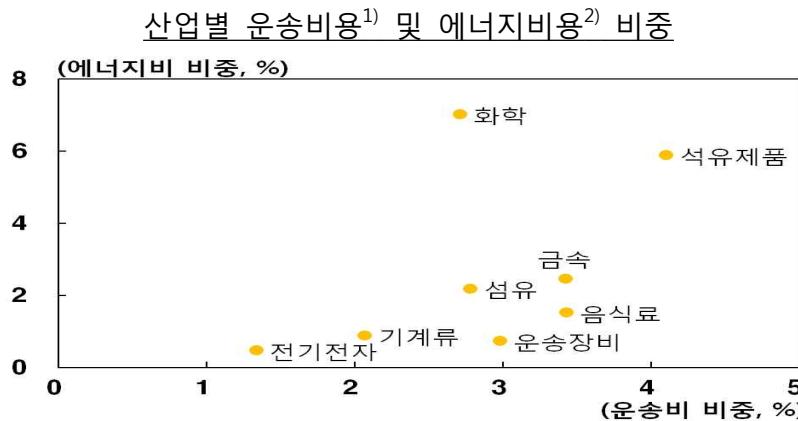
- 최근 회귀 징후를 보이는 업종들은 대체로 다음과 특징을 갖고 있음

- (1차금속, 기계, 화학, 자동차) 생산 공정의 자동화, 노동비용 절감 노력 등에 힘입어 노동비용이 큰 폭으로 절감
 - 특히 2007년 미국자동차노동조합(UAW)^o] two-tier wage structure(신규직 임금<시간당 16~20달러>과 경력직 임금<시간당 28달러>을 분리)를 수용한 이후, Big-3(GM, Ford 및 Chrysler)는 더 많은 신규 노동자를 고용함으로써 노동비용을 크게 절감



- (석유제품, 화학, 1차금속) 에너지비용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상황에서 석유가스 생산의 대폭 확대가 에너지비용 감소를 통해 비용 절감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증대

- (식료품) 신선도 유지 필요성 등으로 인해 운송비용 부담이 상대적으로 크고 특정 시장의 선호도(local preferences)에 맞는 제품 개발이 중요하기 때문에 수요 확대가 국내 생산시설 확대를 수반



주 : 1) 운송서비스/총산출, 2) (석유석탄제품+전기ガ스수도)/총산출
자료 : WIOD(World Input-Output Data, 2011 기준)

- (자동차, 화학, 기계, 기타운송장비) R&D 투자를 통한 경쟁력 확보 이외에도 규제 및 소비자 취향 등 시장 특성에 적합한 제품 개발이 중요하므로 판매시장에 근접한 국내에 생산시설이 위치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업종*

* McKinsey(2013)는 자동차, 화학, 기계, 기타운송장비 등을 “Global innovation for local markets”에 적합한 업종으로 분류

III

제조업 회귀의 배경 및 전망

1. 주요 배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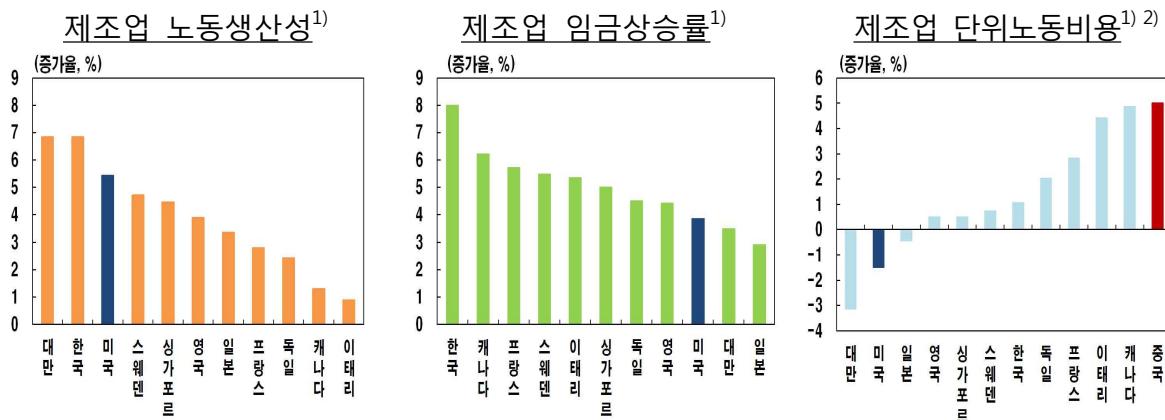
- ◆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중국 등과의 인건비 격차 축소, 운송비 상승, 국내 에너지 가격 하락 등으로 해외 생산에 따른 비용절감의 이점이 줄어드는 가운데 그 동안 잠재되었던 지적재산권 유출, 행정비용, supply chain 분산으로 인한 리스크 증대 등의 문제점이 부각
 - 이와 함께 소비자의 다양한 취향 등에 따른 제품주기 단축, 국내생산 제품에 대한 소비자의 선호도 상승 등으로 국내시장에서 제품개발과 생산을 병행할 필요성이 커지고 정부도 제조업 육성정책을 적극 추진

가. 공급 측면

① 중국 등과의 인건비 격차 축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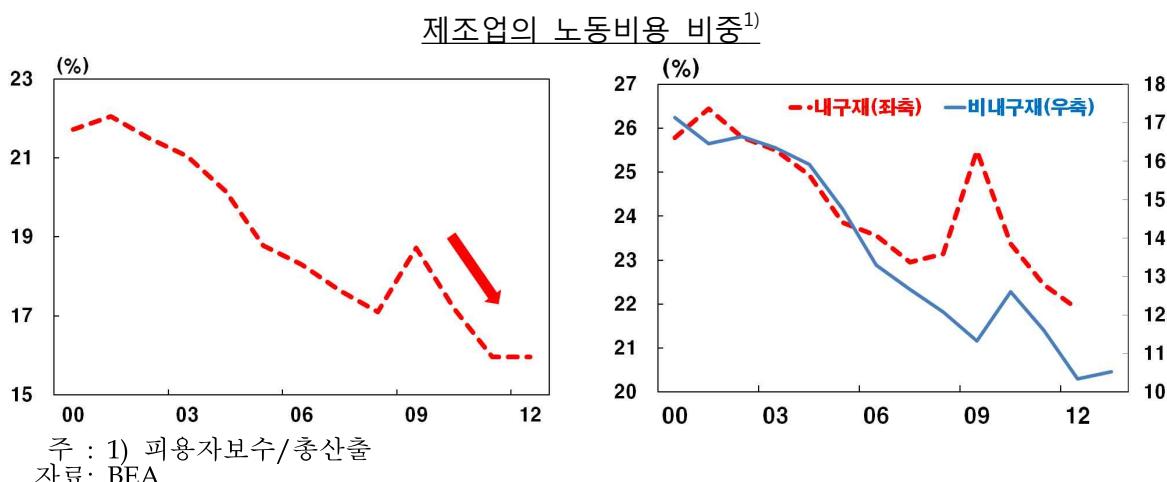
- 미국의 노동생산성이 여타 선진국 및 신흥국보다 빠르게 향상되고 임금상승률은 낮은 수준을 유지함에 따라 단위노동비용이 지속적으로 하락

- 2000년 이후 노동생산성 증가율이 연평균 5.4%('00~'11)로 임금상승률 3.9%를 상회하여 단위노동비용은 1.5% 감소
- 반면 중국에서는 임금이 노동생산성보다 더 크게 증가하면서 단위노동비용이 빠르게 상승(연평균 5% 추정)



주 : 1) 연평균 상승률(00~11) 2) 시간당 보수/시간당 산출, 중국은 Cegłowski and Golub 추정치(03~09) 이용
자료 : BLS, Cegłowski and Golub(2011)

- 이와 함께 생산 공정의 자동화 등으로 노동비용 비중(피용자보수/총산출액)도 꾸준히 하락하여 미국에서의 생산에 따른 인건비 부담도 점차 감소



② 미국의 천연가스가격 하락 및 높은 수준의 국제운송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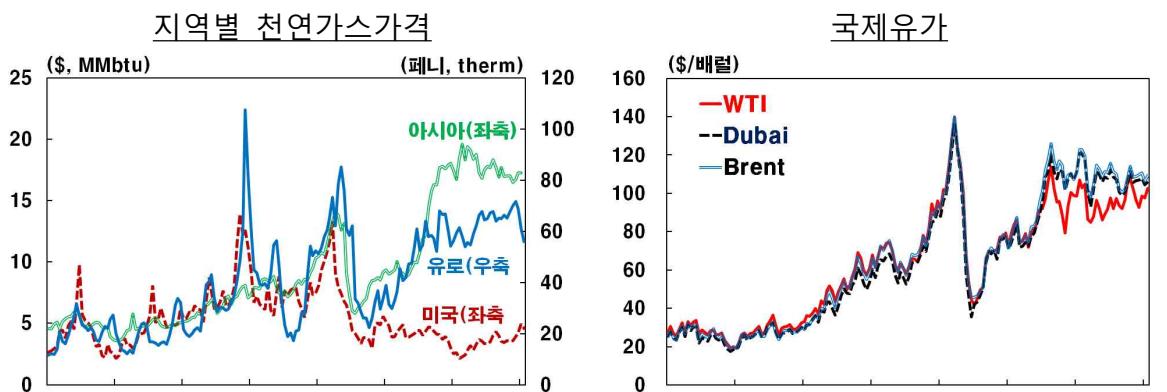
- 미국의 세일가스 생산 확대가 국내 천연가스가격* 하락으로 이어지면서 에너지 소비형 제조업체의 가격 경쟁력이 일층 강화

* 최근 미국의 천연가스가격은 아시아의 1/4 및 유럽의 1/2 수준

- 천연가스가격 하락은 에틸렌*의 생산원가 감소를 통해 화학산업의 경쟁력을 강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

* 고무 · 플라스틱, 에탄올 등의 핵심 원료로 천연가스에서 분리되는 에탄 또는 석유에서 추출되는 나프타, 석탄 등으로 생산 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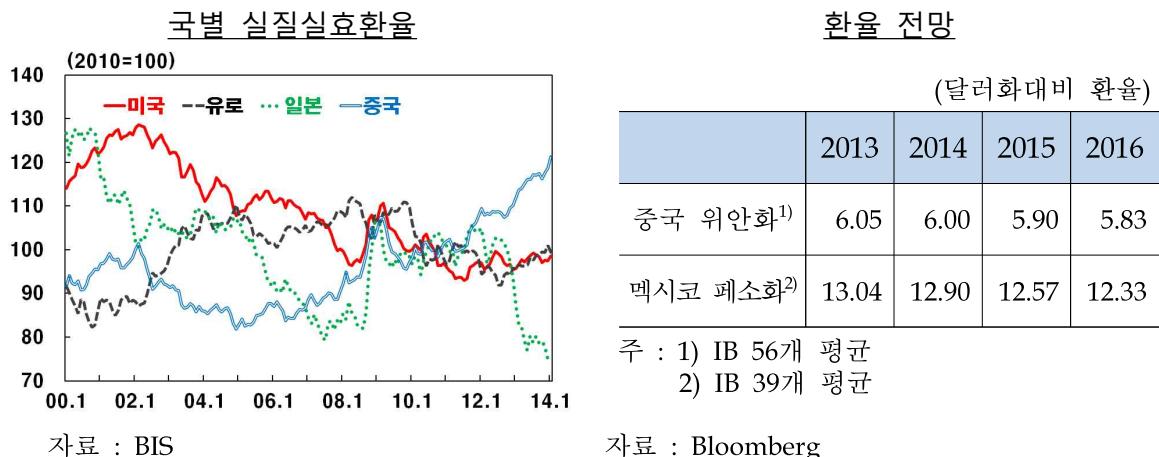
- 국제유가가 2000년대 초반 대비 4배 수준까지 높아짐에 따라 국제 운송비도 큰 폭 상승
 - 국제유가가 낮았던 1990년대에 형성되었던 낮은 수준의 국제운송비가 당시 제조업의 해외 이전을 촉진하는 한 요인으로 작용하였으나, 최근에는 제조업 회귀 요인으로 작용



자료: Bloomberg

③ 실질실효환율 하락

- 2002년 이후 달러화의 실질실효환율이 하락세를 지속함에 따라 달러화 표시 상품의 경쟁력이 상승
 - 대다수 IB들은 향후에도 중국 위안화 및 멕시코 페소화대비 달러가치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인플레이션도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



자료 : BIS

자료 : Bloomberg

④ Supply Chain 분산에 따른 리스크 증대 및 간접비용 상승

- 글로벌 금융위기, 일본 대지진 등으로 인한 주요 생산업체의 파산, 생산시설 파괴 등으로 Supply Chain 분산에 따른 리스크가 현재화되고 이는 비용부담을 가중시키는 요인으로 작용

- 이와 함께 해외에 진출한 미국 기업들은 신흥국 등과의 노동비용 격차가 줄어들면서 기술유출, 비효율적 행정절차로 인한 비용 등의 간접비용 상승에 주목

나. 수요 측면

① 소비자의 다양한 취향 등에 따른 제품주기 단축

- 기술혁신 가속, 소비자의 다양한 취향 등이 제품주기 단축을 초래함에 따라 제품의 기획부터 생산 및 출시까지의 기간을 단축하려는 유인이 일층 강화

- 연구개발 및 기획에 소요되는 비용 절약, 개발과 생산간 시너지효과 극대화 등을 목적으로 국내 생산시설을 확장하는 사례^{*} 발생

* 메르세데스 벤츠의 경우 국내생산을 확대하고 실리콘밸리에 R&D 센터도 확장('13.11월)

— 특히 연구개발과 생산간의 긴밀한 연계성이 요구되는 업종(자동차 등)을 중심으로 회귀 유인이 점차 강화

② 미국산 제품에 대한 소비자의 선호도 상승

- 중국 등 신흥국 생산제품의 질 문제 등으로 소비자가 동일 브랜드라 하더라도 국내 생산제품을 선호하는 경향

- New York Times에 의해 실시된 설문조사('13.1월)에 따르면, 제품가격이 외국산 제품보다 높을지라도 국산 제품을 구입하겠다는 소비자의 응답자 비율^{*}이 68%로 과거 조사결과(54%, 2004년)를 큰 폭 상회

* 미국 상품과 비슷한 품질의 저가 외국상품과 비교할 경우를 상정

— 제품 품질에 대한 질문에서도 국산이 외국산에 비해 우수하다는 응답이 63%를 기록(과거 결과 : 60%)

— 반면 외국산이 우수하다는 응답은 25%에서 11%로 크게 감소

- 월마트 등 대형 소매업체는 소비자의 선호 변화에 대응하여 매장에 국산제품 코너를 개설함과 아울러 국내 조달비중을 확대

다. 정책 측면

- 미 정부가 적극적인 제조업 육성정책^{*}을 추진 중인 가운데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주 정부도 제조업체에 대해 세금환급, 재산세 경감 등의 인센티브 프로그램을 시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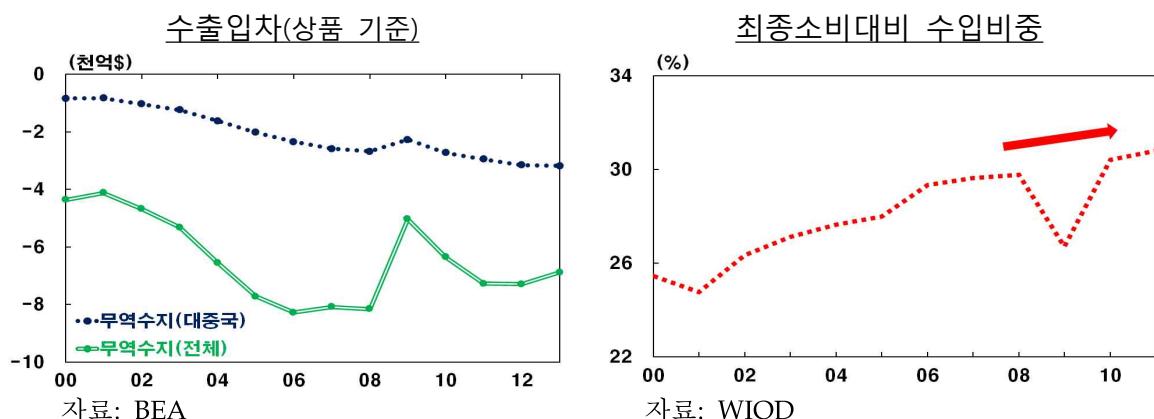
* <참고 1> '미국 정부가 추진하는 제조업 육성정책의 주요 내용' 참조

- 현재 35개 주에서 약 256억달러 규모의 제조업 인센티브 프로그램을 운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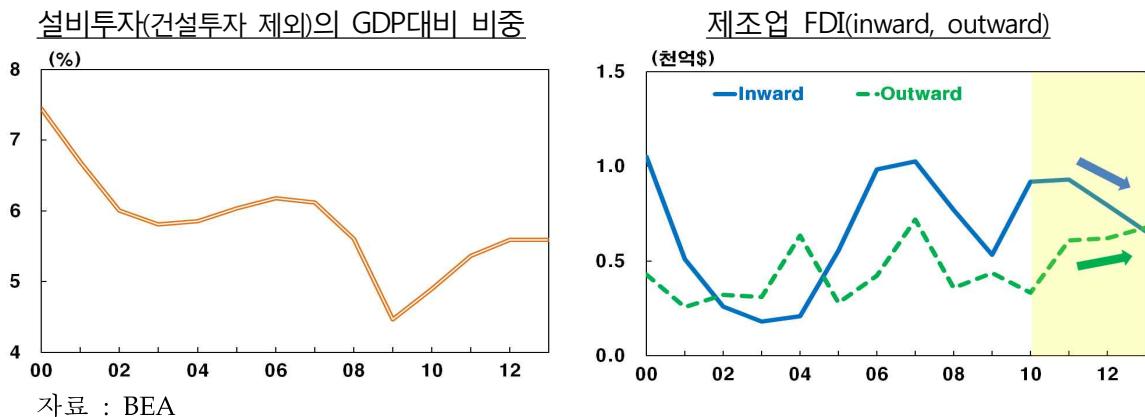
2. 향후 전망

- ◆ 미국에서 제조업 회귀 현상이 일부 업종에서 나타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보다 확산될지의 여부를 현 시점에서 판단하기는 매우 어려우나, 중국의 WTO 가입(2001년) 이후 빠르게 진행되었던 미국 제조업체의 생산시설 해외이전 움직임은 점차 둔화될 것으로 예상
 - 특히 제조업 회귀의 주요 요인인 미·신흥국간 노동비용 축소 등이 지속될 경우 노동비용 부담이 크지 않고 세일가스 생산혁신의 혜택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업종에서 회귀 현상이 보다 뚜렷해질 가능성
- ◆ 그러나 섬유, 의복 등 노동비용 부담이 큰 업종과 생산비용 격차에 민감한 저부가가치 업종에서 회귀가 이루어지기는 어려울 전망

- 최근 미 제조업체의 회귀사례가 발생하는 가운데서도 제조업의 수출입차, 투자 등을 고려할 때 제조업 전반의 흐름이 바뀌지는 않고 있어 향후 제조업 회귀가 추세적 현상으로 정착될 것인지 판단하기는 어려움
 - 일부 업종에서의 회귀에도 불구하고 위기 이후 전체 수출입차는 오히려 확대되는 모습
 - 2000년대 들어 생산시설의 해외이전이 가장 많이 이루어졌던 대상국가인 중국과의 수출입차도 개선되지 않고 있음
 - 미국의 최종소비에서 차지하는 수입비중도 여전히 상승 추세를 시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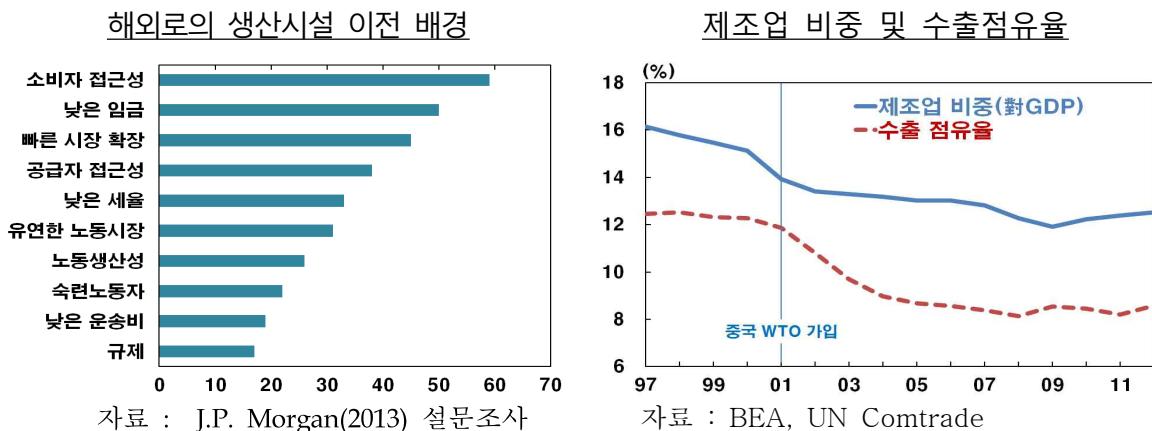


- 국내 설비투자(건설투자 제외, GDP대비 비중 기준)가 위기 이전 수준을 밟돌고 있으며 해외 직접투자도 2010년 이후 꾸준히 증가하는 가운데 외국인직접투자는 오히려 감소



- 위기 이후 공급 및 수요 측면에서 나타나고 있는 중국 등과의 인건비 격차 축소 및 미국의 에너지비용 부담 감소, 소비자의 다양한 취향 등에 따른 제품주기 단축과 국산제품에 대한 소비자의 선호도 상승 등을 감안할 때 중국의 WTO 가입(2001년) 이후 빠르게 진행되었던 생산시설 해외이전(off-shoring)의 움직임은 점차 둔화될 전망*

* J.P. Morgan(2013)은 미국의 수출점유율이 더 이상 하락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 Oya Celasun(2014, IMF WP)은 미국의 제조업 비중(GDP 대비)이 점차 상승할 것으로 전망



- 특히 미국 제조업의 경쟁력이 강화되는 가운데 신흥국과의 인건비 격차가 축소되고 정부의 제조업 육성정책이 성과를 거둘 경우, 노동비용 부담이 크지 않고 세일가스 생산 혁신의 혜택이 클 것으로 기대되는 업종에서 회귀 현상이 보다 뚜렷해질 가능성

회귀 현상이 보다 뚜렷해질 가능성이 있는 부문

조건	해당 업종
i) 신흥국과의 생산비 격차에 상대적으로 덜 민감하고 국내시장 근접형 R&D가 필요한 업종	자동차
ii) 에너지 비용이 높은 업종으로서 세일가스 생산 혁신의 혜택을 받는 업종	석유, 화학, 1차금속
iii) 노동비용이 낮고 운송비용 부담이 상대적으로 큰 내수타겟 업종	식료품

업종별 회귀 가능성 평가

	시장 근접형 R&D ¹⁾	낮은 수출 의존도 ²⁾	낮은 노동 비용 ²⁾	높은 에너지 비용 ³⁾	높은 운송 비용 ³⁾	순수입 ⁴⁾	고부가 가치 ⁵⁾	회귀 가능성 ⁶⁾
음식료		◇	◇		◇			◆
섬유						◇		
석유		◇	◇	◇	◇	◇	◇	◆
화학	◇		◇	◇	◇	◇	◇	◆
1차금속			◇	◇	◇	◇		◆
조립금속		◇				◇		
IT						◇	◇	
전기장비						◇	◇	
기계	◇					◇		
자동차	◇		◇			◇		◆
기타운송	◇						◇	
가구		◇				◇		

주 : 1) McKinsey(2013)에 의해 “Global innovation for local markets” 유형으로 분류된 업종

2) 수출의존도 또는 총비용 대비 노동비용 비중이 제조업 평균 이하인 업종

3) 총비용 대비 에너지비용 비중, 운송비용 비중이 제조업 평균 이상인 업종

4) 수입이 수출을 초과하는 업종

5) 영업이익률이 제조업 평균을 초과하는 업종

6) 3가지 이상의 조건에 해당사항이 있는 업종

□ 그러나 섬유, 의복 등과 같이 노동비용 부담이 큰 업종과 생산비용 격차에 민감한 저부 가치 부문에서는 회귀가 이루어지기 어려울 전망

○ 미국과 중국 등과의 임금 격차는 여전히 큰 수준이어서 노동비용 부담이 큰 기업은 미국으로 생산시설을 이전할 유인이 크지 않은 상황

중국과 미국의 임금 비교¹⁾

(중국/미국, %)

	2005	2010	2015 ^{e)}
생산성 조정 임금	22	31	43
시간당 임금	4	9	17
노동생산성	18	26	36

주 : 1) BCG(2011) 추정 기준

○ 노동비용 비중이 큰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은 중국의 노동비용이 크게 상승할 경우 미국으로 회귀하기보다는 동남아지역 등 임금이 낮은 여타 지역으로 이전할 것으로 예상

□ 한편 미국 기업들은 향후 성장 가능성이 큰 중국 등 아시아국가의 내수시장에 대한 진출을 확대해 나갈 것으로 보이는 만큼 동 부문을 중심으로 한 해외직접투자는 꾸준히 늘어날 전망

<참고 1>

미국 정부가 추진하는 제조업 육성정책의 주요 내용

- 미국 정부는 제조업 육성을 위해 세제를 개편하고 법인세 인하 등을 추진
 - 회귀기업의 이전비용에 대한 일부 세액공제, 첨단 제조업에 대한 세액공제 확대 등을 위한 조세정책*을 제안(2012.1월)
 - * President Obama's Blueprint to Support U.S. Manufacturing Jobs, Discourage Outsourcing, and Encourage Insourcing
 - 오바마 대통령의 대선(2012.12월) 공약이었던 법인세의 상한선 인하($35\% \rightarrow 28\%$) 방안*도 재차 추진(2013.7월)
 - * 교육 및 인프라 관련 정부지출 확대와 연계한 인하 방안으로 공화당이 반대
- 또한 오바마 정부는 집권 2기를 맞아 제조업 부흥을 도모할 추가 방안을 제시
 - 제조업 혁신을 위한 네트워크 강화 방안*
 - * The President's Plan to Make America a Magnet for Jobs by Investing in Manufacturing(2013.2월) 등
 - 산업계, 학계 및 연방정부가 참여하여 유망기술을 선정하고 해당 분야에 대한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제조업 혁신네트워크(NNMI, Network of New Manufacturing Innovation) 마련 및 확대(45개)
 - 도로 보수, 교량 재건 등을 위한 인프라 확충계획(2014.2월, 3,020억\$ 규모)을 통해 제조업 환경을 개선

제조업 육성을 위한 조세정책

구체적 내용	규모
회귀기업 이전비용 20% 세액공제	—
첨단 제조업에 대한 세액공제율 확대	—
일자리 감소지역 투자시 세액공제	60억\$
청정에너지 산업 투자시 세액공제	50억\$
공장 및 장비 투자에 대한 전액 비용처리	40억\$

자료: 백악관 보도자료(2012.1월)

제조업 혁신네트워크 선정 현황

위치	일자	분야
Ohio	13.1	3D프린터 활용 제조기술
N. Carolina	14.1	차세대 파워일렉트로닉스
Chicago	14.2	디지털 제조 및 설계혁신
Detroit	14.2	고성능 경금속

자료 : 연두교서(2013.1월) 등

< 참고자료 >

- 노진영, “미국에서 제조업의 중요성이 부각되는 주요 배경 및 평가”, 국제경제정보 제2102-32호, 한국은행, 2012.7
- 박기임, 김윤수, “미국 제조업, 드디어 동면에서 깨어나는가?”, Trade Focus No.49, 한국무역협회, 2013.8
- Ceglowski and Golub, “Does China still Have a Labor Cost Advantage?” CESifo Working paper Seriese No.3579, SSRN, 2011.9
- Economist, “Here, There and Everywhere”, special report, 2013.1
- Gene Sperling , “The Case for a Manufacturing Renaissance”, The Brookings Institution, 2013.7
- Goldman Sachs, “The US Manufacturing Renaissance: Fact or Fiction?”, Issue No: 13/12, 2013.3
- John A. Pearce II, “Why Domestic Outsourcing Is Leading America’s Reemergence in Global Manufacturing”, Business Horizons 2014-57, Indiana University, 2014.2
- J.P. Morgan, “US Manufacturing Renaissance - Is It a Masterpiece or a Fake?”, Morgan Stanley Blue Paper, 2013.4
- McKinsey Global Institute, “Manufacturing the Future: The Next Era of Global Growth and Innovation”, 2013.9
- MIT Forum, “U.S. Re-Shoring: A Turning Point”, Annual Re-Shoring Report, 2012
- Oya Celasun, Gabriel Di Bella, Tim Mahedy & Chris Papageorgiou, “The U.S. Manufacturing Recovery: Uptick or Renaissance?”, IMF Working Paper, WP/14/28, 2014.2
- Reshoring Initiative, “To Reshore or Offshore: How to Objectively Decide”, NABE, 2013
- The Boston Consulting Group, “Made in America, Again”, 2011.8
- The Boston Consulting Group, “U.S. Manufacturing Nears the Tipping Point”, 2012.3